

"우리 정말 외롭게 싸워왔나 봅니다, 잊힐까 두려웠나 봅니다" 아리셀 유족들, 400명 시민 모이자 터뜨린 눈물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4.08.08 22:37

노동자시민들, "잊지 않고 끝까지 연대" 약속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노동자 시민 추모 행진
"일하다 죽지 않게" 8월 17일 아리셀 희망버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노동자 시민 추모행동이 8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됐다. 사진=백승호

8월 8일 오후 6시 30분을 넘기자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조금은 초조하게 이들을 기다리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40일이 가깝게 화성시에서 투쟁하며 외로웠을 유족들이었다.

그렇게 400명이 유족들과 연대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다. 영정을 품에 안은 유족들과 함께 7시 정각이 되자, 추모행동이 시작됐다.

이순희 씨는 이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가족협의회 공동대표'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인사한다. 이순희 씨의 딸인 엄정정 씨는 지난 6월 아리셀 공장에서 희생됐다. 이 공동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유족들은 하루하루 피눈물 흘리고 있다. 그런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지지하고 지원해줘서 고맙다"며 참가자들에게 인사했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영정을 부여잡은 이 공동대표는 "우리는 한국말도 한국의 법도 잘몰랐고, 이런 참사에서 잘 모르고 어디가서 우리에게 하소연해야하는지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이제는 대책위와 지원자 지지자를 만나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자식잃은 부모의 마음 똑같다고 생각한다. 가슴 터질 것 같이 정말 보고싶다"며 목을 놓아 오열했다.

이순희 공동대표는 "여기 와서 보니까 모든 분들이 지지해주는 것 보니까 그나마 마음 놓인다. 힘을 내서 꼭 끝까지 박순관 구속 처벌 할 때까지 힘을 합쳐서 싸우겠다. 영정을 보고 있자니 아이가 더 보고싶다"며 통곡했다.

끝으로 이순희 공동대표는 유족들이 '보고싶다'고 먼저 외칠테니 함께 구호를 외쳐달라고 요청했다. 유족들이 보고싶다고 외쳤고, 이어 참가자들이 함께 '보고싶다'고 소리쳤다. 추모제는 눈물바다가 됐다. 사회자도 목이메였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노동자 시민 추모행동이 8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됐다. 사진=백승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노동자 시민 추모행동이 8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됐다. 사진=백승호



김태윤 협의회 공동대표는 투쟁 경과를 설명하고, 가해자 에스코넥과 아리셀의 행태를 폭로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안녕하냐는 인사를 우린 하지 않는다. 6월 24일 10시를 기해서 유족들의 안녕은 없었다. 몇 주 동안은 살아남기 위해서 버텼고 또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 왜 죽었는지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며 끝없는 연대를 요청했다.

산재사망으로 가족을 잃고 산재사망투쟁에 연대하고 계시는 김선애(이천 물류센터 한익스프레스 참사 유족)씨도 이어 발언했다. 김 씨는“막을 수 있었던 인재 앞에서 일찍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몸서리를 치며 피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실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가슴이 미어진다”고 전한 뒤 유족들을 향해 “갇은 꿈수에도 끝까지 마음 흐트러지지 마시고, 악한 불의를 향해 더욱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 고통을, 그 슬픔을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더 이상 이러한 아픔과 트라우마가 계속 중복되도록 방관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아픔에 공감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노동자 시민 추모행동이 8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됐다. 사진=공공운수노조

마지막 발언으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섰다. 양 위원장은 “어제 유족분들이 민주노총을 찾아와 주셨다.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하셨고, 오늘도 같은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 꾸짖음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동안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질책으로 들리기도 해서 많이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가족분들이 만드신 하늘색 리본을 나누어 드렸다. 세월호 가족들이 만들었던 노란 리본을 이태원 가족들이 보라색 리본으로 이어받아야 하고, 그것을 오송참사의 초록색 리본으로, 초록색 리본을 또다시 아리셀의 유족들이 하늘색 리본으로 이어받아야 하는 잔인한 현실을 계속해서 안된다”고 애도했다.

양 위원장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말도록 하자고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지만, 노동자의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 법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희생자들을 막기 위해 우리가 이 투쟁을 함께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그 곁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함께 서 있을 것이라는 것,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잊혀지는 것,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 그것만큼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약속하자”고 했다.

추모제 마지막 순서로 유족들과 참석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는 시간을 가짐. 유족들과 참석자들이 서로를 마주보며, 8월17일 화성에서 열리는 희망버스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추모행동에서는 이희태 금속노조 미전국장,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도 발언했다.

추모행동에 참가한 이들은 ‘아리셀 중대재해 진상을 규명하라’, ‘아리셀 박순관대표 즉각 구속하라’, ‘위장도급 불법파견 강력 처벌하라’, ‘위험의 이주화 즉각 중단하라’구호를 외침. 큰 함성과 박수를 보냈고, 유족들은 인사하며 눈물을 떨궜다.

추모제를 마친 뒤, 유족들과 추모제 참석자들은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지청까지 행진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노동자 시민 추모행동이 8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됐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노동자 시민 추모행동이 8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됐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노동자 시민 추모행동이 8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됐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노동자 시민 추모행동이 8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됐다. 사진=백승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노동자 시민 추모행동이 8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됐다. 사진=백승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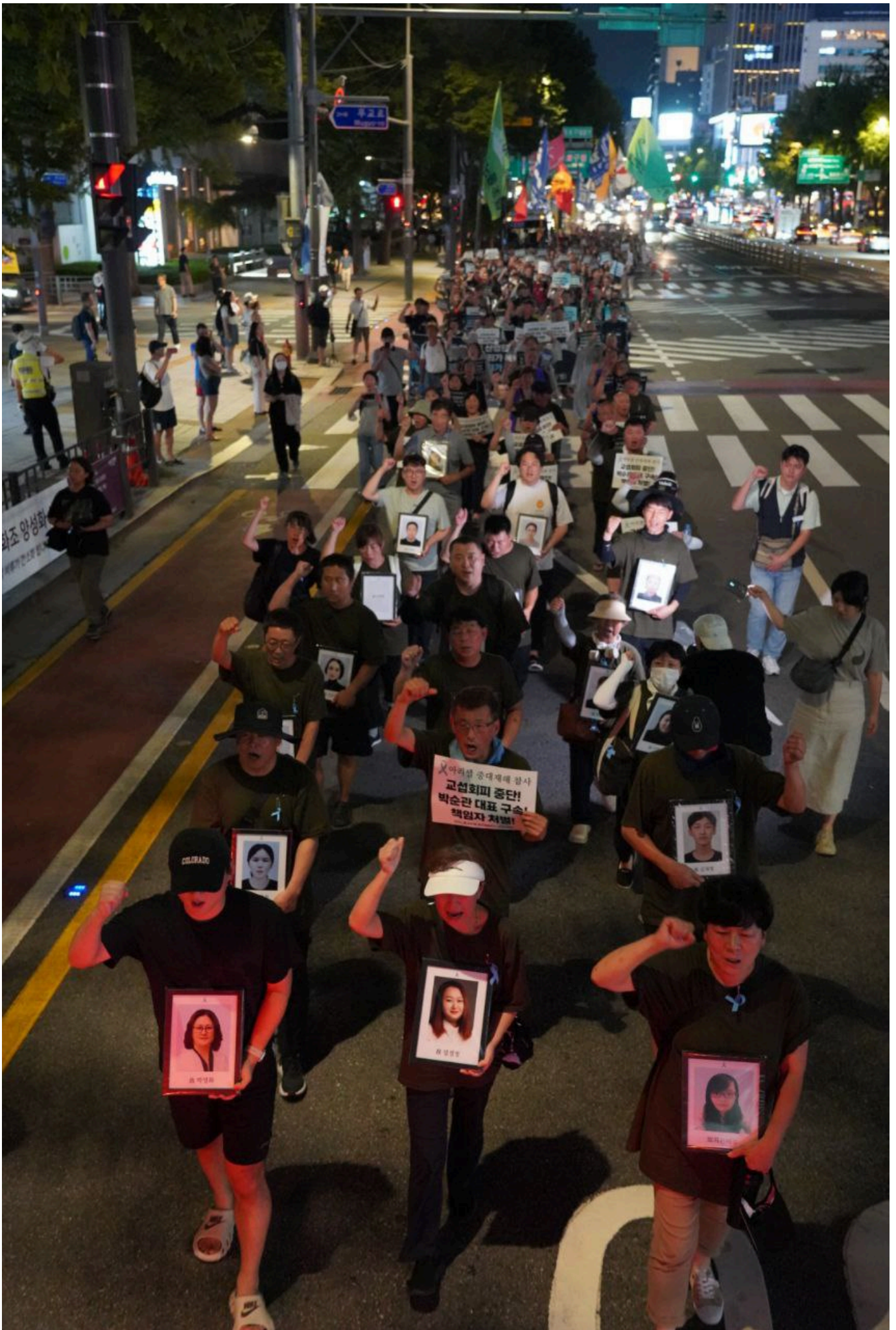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노동자 시민 추모행동이 8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됐다. 사진=백승호



아리셀 증대재해 참사 노동자 시민 추모행동이 8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됐다. 사진=백승호



아리셀 증대재해 참사 노동자 시민 추모행동이 8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됐다. 사진=백승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노동자 시민 추모행동이 8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됐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